

2013년04월11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⑤	②	①	②	④	⑤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②	③	③	④	⑤	①	④	②	⑤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6.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견해로 옳은 것은?

이(理)는 태극(太極)이며, 태극은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서 구체적 사물 속에 내재합니다. 그래서 이는 천지에 앞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음[心]을 통하여 천지 만물의 존재 원리인 이가 인식되는데, 마음에 이러한 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곧 이입니다.

갑

을

- ①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 ② 사물의 이치가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 ③ 타고난 참된 앎의 구체적인 발휘[致良知]를 중시해야 한다.
- ④ 아는 것[知]과 행하는 것[行]이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⑤ 실증적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7. 다음 사상가와 을이 공통적으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理)는 태극(太極)이며, 태극은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서 구체적 사물 속에 내재합니다. 그래서 이는 천지에 앞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음[心]을 통하여 천지 만물의 존재 원리인 이가 인식되는데, 마음에 이러한 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곧 이입니다.

갑

을

자성(自性)은 본래 텅 비어 있어 청정하므로 돈교(頓敎)의 큰 가르침을 깨치면 서방 정토를 활나에 볼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염불을 하여도 극락왕생 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자기 본성을 안다면 단번에 깨달아서 곧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 ①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 ② 이론과 지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인위를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 ④ 경(敬)의 자세로 타고난 이기심을 제거해야 한다.
- ⑤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심재(心齋)를 실천해야 한다.

8. 다음 글에 나타난 전통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국악의 참맛을 알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동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K씨의 수상 소감이다. 그는 자신의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민요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국악 동요를 작곡하였다. 그가 작곡한 국악 동요는 우리에게 익숙한 ‘갯거리장단’을 현대식 동요에 접목한 것으로,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어깨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신명났다.

- ① 전통을 현대에 종속된 문화로 간주해야 한다.
- ② 전통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
- ③ 전통을 현대와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④ 전통을 계승하여 창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⑤ 전통과 이질적인 문화의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ㄴ)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고려 시대 불교 사상이 갑,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하시오.

갑: 교(敎)를 공부하는 사람이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만을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이 인연(因緣)을 잊고 내적인 것만 밝히는 것은 모두 이변(二邊)에 구속된 것이다.

을: 선정(禪定)은 마음의 공적(空寂)한 본체요, 지혜(智慧)란 그 마음의 영지(靈知)한 작용이다.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과 지혜도 함께 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하면, ㉠ 갑은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교선의 조화를, ㉡ 을은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선교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구체적 수행 방법으로 ㉠ 갑은 교리 연구와 선(禪)의 수행을 함께 할 것을 강조하였고, ㉡ 을은 진리를 단박에 깨친 뒤에도 절진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 갑과 을은 모두 속세를 벗어나 오로지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ㄴ)

1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도 없듯이,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옳은 것 때문에 그른 것이 있고, 그른 것 때문에 옳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옳고 그름에 속박됨이 없이 자연에 비추어 본다.
(나)	㉠. 그러면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것이다. ㉡.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	㉡
①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정신적 절대 자유를 추구하라
②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라	소박(素樸)함을 유지하라
③	상대적 관점으로 보아라	예(禮)로써 본성을 바꾸어라
④	감각적 지식을 추구하라	내면의 도덕성을 회복하라
⑤	차별적 지혜를 버려라	공정한 상과 벌을 시행하라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11. 그림은 동 서양 ·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다수결 원리를 바탕으로 한 민주 사회를 주장하였다.

② 을은 사적 소유와 계급이 소멸된 공산 사회를 주장하였다.

③ 병은 지위에 맞는 역할을 다하는 대동 사회를 추구하였다.

④ 갑, 을은 모든 사람의 재산이 공유된 평등 사회를 추구하였다.

⑤ 을, 병은 사회 제도와 규범이 정비된 도덕 사회를 지향하였다.

12.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성(性)의 자의(字意)는 오직 호오(好惡)를 주로 하여 말하는 것인데 어찌 심(心)을 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슴의 성은 산림을 좋아하고 썩은 성은 길들여 기르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 하늘이 처음 생명체를 낳을 때 이 성을 주어 잘 따르고 행(行)하여, 도리를 이룰 수 있게 한 것이다.

①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이자 이치[理]인 것이다.

② 사단은 덕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③ 덕은 주체적 선택을 통해 선(善)을 행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④ 욕구는 천리(天理)와 대립하는 것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⑤ 본성의 기호(嗜好)는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13.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웅기장이가 진흙을 쳐서 길그릇을 만드는데, 길그릇은 웅기장이의 작위(作爲)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웅기장이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또 목수가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은 목수의 작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그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의와 법도를 갖추게 된 것은 ㉠

① 선천적인 도덕성을 보존하고 확충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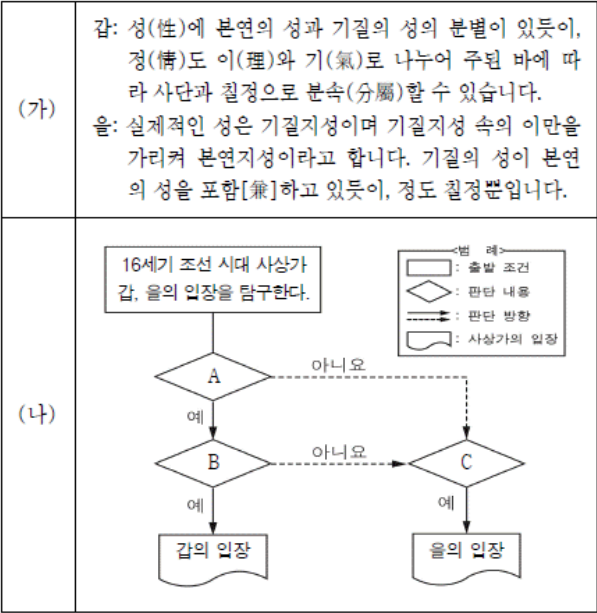
② 엄격한 형벌로써 선한 본성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③ 인위적인 노력으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④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회 제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⑤ 중도(中道)를 자각하여 보살행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1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이와 기 모두 스스로 작용할 수 있는가?
ㄴ. B: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善)한 측면인가?
ㄷ. B: 사단과 칠정은 정이지만 연원이 다른가?
ㄹ. C: 사단과 칠정은 기가 발하여 나타나는 것인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5.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스스로 뒤에 처하기 때문에 항상 앞서고, 자신을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존재하게 한다. 스스로의 견해대로 하지 않는 까닭에 명확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는 까닭에 아름답게 빛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공(功)이 있게 된다.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도 그와 다퉴 수 없다.

< 보 기 >

ㄱ. 도(道)를 실현하기 위해 분별적 지혜를 쌓아야 한다.
ㄴ.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도덕적 교화를 추구해야 한다.
ㄷ.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지와 무욕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ㄹ.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닌 인간이 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 선왕(先王)들은 바로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을 차마 해(害)하지 못하는 정치[不忍人之政]를 하였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을 차마 해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가?
- ② 좌망(坐忘)을 통해 제물(齊物)에 도달해야 하는가?
- ③ 사덕(四德)을 발현하여 선한 본성을 획득해야 하는가?
- ④ 허심(虛心)으로 순수한 자연의 덕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 ⑤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라야 하는가?

17. 표는 중국 도가·도교 사상의 전개 과정이다.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기	한(漢) 초(初)	한(漢) 말(末)	위·진(魏晉)
도가·도교 사상	A	B	C
주요 특징	황제와 노자를 숭상함	종교적 구원을 약속함	청담(淸談)을 즐김

< 보 기 >

ㄱ. A는 청정 무위를 바탕으로 한 이상 사회를 제시하였다.
ㄴ. B는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신선(神仙) 사상을 추구하였다.
ㄷ. C는 세속적 가치를 넘어서는 철학적인 사유를 추구하였다.
ㄹ. A, B, C는 모두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8. 다음 글에 나타난 세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에서는 우리의 몸이 천연(天然)의 건축 구조로서 우주의 모형을 본뜬 축소판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거대한 우주는 우리 몸의 구조를 최대한으로 확대한 생명체로 인식한다. 즉 소우주로서의 인간 개체와 대우주로서의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그물망을 통해 조직되어 있으며, 그러한 그물망을 서로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氣)의 흐름이다.

- ① 자연을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본다.
- ② 자연을 만물이 상호 작용하는 유기적인 체계로 본다.
- ③ 세계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의 집합으로 본다.
- ④ 세계를 불변의 인과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로 본다.
- ⑤ 자연을 단순히 물리적 개념으로 환원 가능한 체계로 본다.

19.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갑, 을) [3점]

갑: 서양의 물건은 대부분이 음탕하고 욕심을 유도하며 윤리를 깨뜨리고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며 천지(天地)에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을: 서양인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조리가 없으며 도루지 한울님[天主]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몸에는 기화(氣化)의 신(神)이 없고 학문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으므로 형식뿐입니다.

〈 보 기 〉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가?	
		예	아니요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서양 문물의 수용을 강조하는가?	예	A	B
	아니요	C	D

- ① A, B
- ② A, D
- ③ B, C
- ④ B, D
- ⑤ D, C

20. 다음은 신문 칼럼의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럼

갈등의 시대, 그 해법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다문화 사회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모든 것을 자신의 가치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자기주장의 절대성만을 고집하는 태도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동일함[一]은 동일하지 않음[非一]에 상응하므로 다름[異]에 상관적이어서 다름과 같이 동거하며, 다름은 다르지 않음[非異]에 상응하므로 동일함에 상관적이어서 동일함과 같이 동거한다.”라고 말한 ㉠ **신라 시대 어느 사상가의 견해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것은 상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태도를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후략)...

- ① 일체(一切)에 대한 자기중심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 ②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 오계(世俗五戒)를 주장하였다.
- ③ 하나의 마음[一心]에 근거한 화쟁 사상을 정립하였다.
- ④ 경천사상을 중심으로 유·불·도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 ⑤ 진(眞)과 속(俗)이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하였다.